축 사

'2005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 유공자 포상식에서

김봉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예의 수상자와 기업 그리고 출품업체, 소비자 여러분 !

오늘 '2005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 시상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1966년에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전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이에 대한 시행규칙과 전기용품 기술기준령을 제정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누전 혹은 감전으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한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법령으로는 관리나 규제조항이 불충분하므로 차제에 전기사업법과 별도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안을 1973년 10월 12일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불법 ·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발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1974년 1월 4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 시행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1974년 법제정 당시만 해도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 수는 극히 소수인데다, 품질수준도 조악하여 불법 ·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이나 누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매우 컸던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전기용품제조업이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주요 산업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전기공업국으로 일약 도약하게 되었음은 실로 격세지감이 있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용품의 법률에 대한 끊임없는 개정, 발전과 안전성 및 내구성의 유지는 부단한 기술개발의 노력과 잠시라도 도외시되어서는 안 될 안전의식이라는 양

쪽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탄탄한 바탕위에서 발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 시대에 전기용품의 생산량이나 사용량이 점고된 차제에 결함 있고 불량한 전기용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그와 관련하여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제조업의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내수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와 소비자전망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은 하락하고 있어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하히 기업과 가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느냐가 경기회복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2005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은 시의에 맞는 중차대한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부존자원에 제한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은 오직 가격경쟁으로 인한 업체간의 이전투구,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조악한 품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전기제품도 과감하게 국제시장에 눈을 돌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고품질로 그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수출만이 오직 우리의 살길임을 명심하면서, 모쪼록 이번 전기제품대전을 계기로 전기제품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축하를 드리며, 또 출품업체 여러분 그리고 이 전시대전을 준비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 혜 원 원장